

# 으뜸도시 완주 가속화 탄력

## 군, 국·도비 547억 확보 작년대비 2배 이상 급증

완주군은 올해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국·도비 547억원을 확보해 다함께 열어가는데 으뜸도시 완주 가속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230억원보다 317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2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지난 30일 군에 따르면 중앙부처 및 전북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9월 현재 총사업비 850억원(국도비 547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고 규모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10월~12월 공모 선정이 남아있어 그 규모가 600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완주군 공모사업은 대한민국의 으뜸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한 것들이 3대 핵심정책 분야에서 총 212억원을 확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모바일(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완주' 분야에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이 선정됐다.

'트레싱(삶의 질) 완주' 분야에서 읍면동 복지허브와 모델링 선도지역(이서) 사업,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 등이 선정됐으며, '농도피아(풍요로운 농촌) 완주' 분야에서는 수요자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등에 선정돼 농촌 경쟁력에 큰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전주천 발원지 슬리물결 정비사업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비도 296억 원을 확보하여 안전한 도시 완주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 외에도 군 단위 전국 최초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2차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범사업(군 단위 유일), 문화의집 공모사업(14건), 2016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회공헌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국가 공모사업들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일 군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 신속한 동향파악과 사업선정 평가를 위해 논리개발 타당성 용역 등 철저한 사전대비를 주문해 큰 성과를 이루었다"면서 "이번에 확보된 공모사업은 주민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알짜배기 사업들이다"며 "앞으로도 올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전 직원 국가예산 확보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실시, 우수 성과직원 인사우대, 포상 등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주민 행복을 위한 국가예산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올해 택시자율감차 미 실시

## 148대 중 과잉공급 면허대수 78대... 업계, 소극적 입장

완주군이 올해 택시감차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30일 군에 따르면 택시자율감차 여부 및 규모 등을 협의하는 택시자율감차위원회 회의 결과 2016 택시감차는 미실시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현재 148대의 택시 중 과잉공급 면허대수가 78대이고, 완주군 택시업계는 감차에 대해 소극적 입장이다.

법인택시는 현재 택시감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며, 개인택시조합은 완

례, 봉동지역으로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는 개인택시 실정을 고려해 약간의 감차는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차 미실시 원인으로서는 완주군 택시를 이용한 여러 가지 복지사업 추진 및 향후 테크노벨리, 삼봉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한 기대심리와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이 1대당 1,300만원에 불과하여 감차에 필요한 나머지 금액은 업계 출연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은 완

주군 인구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향후 상황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주시 영업권까지 가지고 있는 (유)삼산교통의 36대감차를 고려할 경우 과잉공급 면허대수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한 목소리이다.

완주군 택시자율감차위원회 위원장 김홍기 부군수는 "완주군 택시 감차는 택시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6년에는 미실시하고, 내년부터 삼봉지구 개발 등에 따른 앞으로의 인구증가를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 의암주논개 기념식 · 장수군민의 날 행사 성료

## 의암주논개상 김벌아씨 추대

탄신 442주년 의암 주논개 및 제49회 장수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3일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신안 주씨, 해주 최씨 종친회, 지역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한누리전당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의암사 영정각에서 꽃다운 나이에 순절한 논개의 애국충정을 기리는 논개 제례봉행이 거행된 데 이어 지역의 명예를 드높

이고 지역발전과 향토문화발전에 앞장서 온 군정발전 유공자와 군민의장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의암주논개상(義巖朱論介像)으로 선정된 김벌아씨에 대한 추대식이 진행됐다.

특히 장수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육상, 축구, 배구, 배드민턴, 씨름, 게이틀 등 스포츠경기와 단체술놀이, 투호, 고리걸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경기가 펼쳐져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의 장이 되었다. 또한 제6회 전국 논개시 퍼포먼스 대회와 논개정신 발

전방안 심포지엄이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과 타코마리조트에서 각각 진행돼 논개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잊혀져가는 민족정신과 올바른 역사관을 계승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군은 논개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군민화합을 다지기 위해 매년 음력 9월 3일 주논개 탄신일을 기념해 의암주논개 기념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9월 문화가 있는 날 맞아 장수군, 뮤지컬 '그리운 논개' 공연 성황

장수군은 9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최근 뮤지컬 '그리운 논개'를 성황리에 공연했다.

이날 자유학기제를 시행중인 중학교 1학년 학생 등 군내 중학생과 인술교사 등 500여명이 관람했다.

주논개는 장수군에서 태어나 임진왜란때 술에 취한 왜장 게이무라 로구스케를 피어 벽류(碧流)속에 있는 바위에 올라 겨안고 전주 남강에 투신하여 순절한 한국 여인의 표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공연은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공모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장수군과 사)달라트마을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기획공연을 추진하였다.



최용득 군수는 "젊은 인재를 불꽃처럼 살다 간 논개님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잊혀져가는 민족정신과 올바른 역사관을 계승 발

전시키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 계남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현장포럼

장수군 계남면(면장 박현식)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황석용)에서는 지난 27일 오전 계남면 문예복지관 2층 강당에

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2018년 농촌중심지 공모사업을 위한 현장포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문예복지관 2층 강당에

중심지 기능 확충 및 배후마을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마을 발전 사업으로, 복지·문화관광·마을 개발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추진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사업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의회,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 이해양 의원 대표발의... 평등권 실현 위해 노력



무주군의회가 '무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의회 이혜양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인권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주군에 거주하는 전체인구의 10%에 달하는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를 통한 실태개선 조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해양 의원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금과 쌀만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와 평등권 보장이다"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담당부서에서도 조례의 취지를 살려 장애인 인권증진에 실효성을 기해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를 통한 실태개선 조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형식적인 조례 제정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 복지 관련기관 및 행정과 수차례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 기원

## 설천면민의 날 행사 성황리 마쳐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제25회 설천면민의 날 행사(주최 무주군, 주관 설천면 체육진흥회)가 3일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백경태 도의원을 비롯한 설천면민과 출향민 등 3천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 설천면 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설천면과 자매결연을 맺은 가장군 정관읍, 수원시 인계동,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주민들과 등 도시소비자들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설천면다예술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행사는 기념식과 체육, 민속행사, 노래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홍보와 시골잡터, 향토음식 부스 등이 부대행사로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최병현 면장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지 주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손꼽히기에 최선을 다해보자"며 "오늘이 자리가 애항심을 고취시켜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 조사성과 과제'를 주제로 진안군과 군산대 박물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심포지엄이 진안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열렸다.

#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 조사성과 공유

## 초기 청자가마 가능성 제기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 조사성과 과제'를 주제로 진안군(군수 이항로)과 군산대학교박물관(관장 박정근)이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심포지엄이 지난날 30일 진안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 발굴조사 성과를 종합하고, 가마터의 성격과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은 김영원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총 7

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펼쳐졌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의 운영시기가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는 견해와 함께 정치군사적 상황으로 볼 때 후백제에서 제작된 한반도 가장 이른 시기 초기 청자가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또한 심포지엄을 통해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는 박물관에서 진흥가마로의 변천과정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유적으로, 학술적 의미와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 특별블리스

## 무주군, 미취학 아동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은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몸 튼튼 마음 튼튼 건강증진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월~ 28일까지 4주 일정으로 진행되는 건강증진 교실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희망기관 11곳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보건의료원 통합 건강증진팀이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 운동과 금연, 영양, 구강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첫 주에는 건강기초체크를 실시하며 2주차에는 영양(비만)교육과 영양 간식만들기 체험을, 3주차에는 흡연예방과 구강보건 교육을, 4주차에는 신체활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주보건의료원 김선영 건강증진 담당은 "식습관, 생활습관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진행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 접수

장수군(군수 최용득)은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6 2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부모중 1인 이상 또는 학생이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12. 1. 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든든(취업후),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신청절차는 장수군 홈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팝업창을 클릭 또는 군청(행정지원과)·읍·면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장수군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2011년 말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 용담, 홍삼축제 홍보 나서

진안군 용담면 직원들이 다가오는 10월 홍삼축제 홍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직원회의를 통해 축제 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인 주민 홍보를 위해 홍보 티셔츠를 제작하자는 의견을 시작으로 지난달 29일부터는 자체 제작한 축제 홍보용 티셔츠를 입고 근무를 하고 있다.

이는 색다른 홍보 방법으로 먼 주민뿐만 아니라 면사무소를 처음 방문하는 민원들에게도 궁금증을 갖게 하여 독특한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완주군,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완주군이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에 맞춰 산내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완주군은 산행인구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 및 무허가 임산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임도면, 휴양림 등 비공적 차량 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과 관광버스 등에 대하여 집중 감시활동이 전개된다. 이와 함께 예방 및 계도활동도 진행한다.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모악산, 대둔산, 고산 휴양림 등 완주군 주요 관광명소에 '허가없이 남의 산에서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한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무단 임산물 채취행위가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를 예방할 계획이다.

/원주=이종복 기자